

# 전자신문

Premium Data Center의  
대용량 DDoS 방어시스템, 클린존  
kt ICC (차세대 IDC) 문의: 1588-0860

연중기획 / 실감미디어 4면 스마트폰 사용자 '백신엔 속먹' 8면 스무포, 한국시장 공식 철수 12면 섹션 / Future 17~19면

## u시티 '없던 일로'?

### 국토부·LH공사, 사업보류·축소 검토 "건설정책 실패 책임 전가" 비판 거세

김원배·정진욱기자 adamkim@etnews.co.kr

u시티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시 행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u시티 사업을 보류하거나 기존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 중이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가 인하 압력이 거세다 LH의 천문학적 부채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u시티를 반도체에 비유하는 수출효과로 카우치였던 국토부마저 입장을 선화하면서 대표적인 컨버전스 산업인 u시티가 꺾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고 있다.

18일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입지를 총괄하는 국토부 신도시개발과가 신도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건설 중인 u시티 관련 시스템 구축 규모를 축소하거나 신규 u시티 사업을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도시개발과는 이 같은 의견을 u시티를 담당하는 도시재생과 관계자 등에게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도시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고, 이를 해결하라는 지침이 부처에 하달됐다"며 "u시티에 IT시스템이 대거 적용돼 분양가 인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u시티 추진을 놓고 내부 관계자들이 이견을 보이는 등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u시티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주무부처가 사업을 포기하는 형국이다.

윤현수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방향성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LH는 아예 최고경영진이 u시티 사업의 속도 조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LH 최고경영진이 u시티 사업을 연기하고 u시티 사업처에 지시했다"며 "신도시 미분양 사태로 공사의 존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u시티를 재외하고 신도시를 건설한 이후

추가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u시티 관련 기업 한 임원은 "수심조원에 달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u시티 사업은 참아야 몇 백억원에 불과해 이로 인한 분양가 인상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며 "각종 건설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미래 성장동력인 u시티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신도시 개발 이후 u시티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려면 오히려 비용이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편 LH는 16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미매과 자산 판매 총력 스태플리케이션 사업 조정 스텔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스폰지리펀트 등 경영혁신 단행물을 주요 내용으로 비상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정보기술(IT) 서비스와 통신, SW, 건설사 등은 LH의 이 같은 계획이 u시티 사업 지연에 따른 u시티 사업 축소라는 부담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했다.

정문수기자 dschung@etnews.co.kr

## "정보수집사건, 한국정부에 적극 협조"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

정문수기자 djang@etnews.co.kr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이 경찰의 구글코리아 압수수색은 오프라인 뺏겼던 결과이며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동 구글코리아에서 이뤄진 영상 인터뷰에서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은 최근 구글코리아

아에 대해 실시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랍이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최근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관련기사 7면

서프 부사장은 "이번 사건은 오프라인 뺏겼던 결과"라고 전제하며 "구글은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했으므로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또 "소프트웨어 여러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발생했고 이미 일어난 일인 만큼 정보 폐기 등 추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구글 간 공동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은 "이번 사건은 오프라인 뺏겼던 결과"라고 전제하며 "구글은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했으므로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또 "소프트웨어 여러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발생했고 이미 일어난 일인 만큼 정보 폐기 등 추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구글 간 공동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victolee@etnews.co.kr



녹색세상의 나노기술 속으로

'녹색세상을 향한 나노기술'을 슬로건으로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나노코리아 2010'에서 KIST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탄소나노튜브의 특징을 3D화면으로 살펴보고 있다.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11개국 250개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신제품 발표와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련기사 11면

## 아이폰4 예약판매 '돌풍'... 9월 시장 더 뜨겁다

### 13시간 35분만에 13만대 돌파... 갤럭시S '스 화이트'로 맞붙

이진희기자 victolee@etnews.co.kr

애플 아이폰4 예약판매 대수가 13만대를 넘어섰다.

18일 KT 폰스토어를 통해 사전 예약이 진행된 아이폰4의 판매량은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또 한 차례 달구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5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11월 말 아이폰3GS, 지난 6월 말 출시된 삼성전자가 갤럭시S의 빅히트로 '아이폰 대(대) 갤럭시' 양강 구도로 재편됐다. 아이폰4 예약 판매에 따라 새로운 시소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폰4의 사전 예약판매는 서바이벌주에 따른 점수 지연이 나타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날 오전 6시 시작한 예약판매는 불과 4시간 만에 7만명 선을 돌파했다. 지난 해 11월 말 아이폰3GS 모델 출시 당시 닷새 만에 도달한 6만5000대 선을 몇 시간 만에 넘어선 것이다.

오후 7시 35분을 넘어서면서 13만대를 돌파했다. 아이폰3GS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 85만대가 팔렸고, 갤럭시S는 최근 55일 만에 80만대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이폰4가 주춤한 사이 슈퍼 AM OLED 화면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으로 무장한 갤럭시S가 시장을 파고들면서 상당한 압력을 다졌다.

아이폰4의 초반 예약판매 성적표가 기대 이상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9월 이후 아이폰4와 갤럭시S가 펼쳐질 2월 제2 라운드 경쟁은 또다시 혼전이 예상된다. 아이폰4 예약판매가 시작된 이

로 무장한 갤럭시S가 시장을 파고들면서 상당한 압력을 다졌다.

아이폰4의 초반 예약판매 성적표가 기대 이상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9월 이후 아이폰4와 갤럭시S가 펼쳐질 2월 제2 라운드 경쟁은 또다시 혼전이 예상된다.

날 삼성전자는 후면에 흰색 컬러가 적용된 '스 화이트' 버전의 갤럭시S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맞붙을 준비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S가 시장안착에 성공한 만큼 조만간 출시될 갤럭시U, 갤럭시K 등으로 전용을 확대한 뒤 고객층을 세분화한 타깃 마케팅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아이폰4는 이르면 이달 27일 소비자에게 들어간다.

### 데이터 저장장치 백업, 삭제 Data복구 휴대폰복구

(주)씨앤씨

### 데이터 저장장치 백업, 삭제 Data복구 휴대폰복구

(주)씨앤씨

### BUFFALO 기업전용 파일서버 버팔로 NAS(버퍼드)

SOLIO 환경에 최적화

## ABCO

### 믿음, 꿈, 보람 그리고 창의와 변화

### 품질제일을 통한 고객감동실현

###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 건전한 기업문화형성

핵심역량	핵심역량	핵심역량
연구개발	인적자원관리	품질경영
생산관리	자금자원관리	인사관리
영업관리	공급관리	생산관리
정보관리	연구개발	인사관리
유통관리	연구개발	인사관리
유통관리	연구개발	인사관리

■ 연구개발 : 2010년 8월 19일 ~ 9월 15일까지  
■ 인사관리 : 인사관리팀이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사관리팀장은 인사관리팀장입니다.  
■ 유통관리 : 유통관리팀이 유통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통관리팀장은 유통관리팀장입니다.